

‘백팩메고 청년들과 인생 2막’... ‘굿잡5060’ 참여자 모집

영화 ‘인턴’ 서울에서는 현실이 된다

퇴직 이후의 상실감·무력감 떨쳐낼 수 있어

K씨(63)씨는 경리·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30년 이상 근무하다 2018년 12월 정년퇴직 후 ‘굿잡 5060’에 지원했다. 나이가 많아 취업이 쉽지 않다는 고민과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무보수로 예비사회적기업에 자원 봉사를 겸하며 구직활동을 꾸준히 한 결과, 작년 8월 벤처기업 회계에 취업했다.

직업 평균 나이 30세 이하, 50명이 넘는 직원 중 유일한 60대 직원으로 백팩을 메고 출근하며 청년 동료들과 건강한 인생 2막을 보내고 있다.

또다른 K씨(59)씨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서 모범근로자상을 받으며 30년 넘게 성실히 근무하다 2018년 11월에 정년퇴직했다.

퇴직 이후에 느끼는 상실감과 무력감을 떨치고자 굿잡5060에 참여했고, 중증장애인과 전문가가 함께 일하는 사회적기업에 입사했다. “개인으로는 보수의 높고 낮음을 떠나 의미가 있는 사회 참여를 하고 회사에서는 직원들과 화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며,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아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따뜻한 인생후반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대표 김영대)은 신중년 세대가 사회적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 자신의 커리어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굿잡5060’ 프로젝트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굿잡5060 프로젝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현대자동차그룹, 고용노동부, ㈜상상우리 등 4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특장점을 함께 활용에 신중년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시작해 2020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총 282명의 신중년이 교육과정



을 수료했고, 이중 142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2020년도부터 사업 규모 확대를 인프라 확장을 통해 더 나은 교육과정과 재취업의 성공

률을 높이고자 한다. 굿잡5060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 또는 스타트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을 대상으로 재취업을 돕

기 위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8회차로 나누어 진행되며 3월부터 2회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굿잡5060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과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45세 이상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각 회차별로 서류 전형과 선발워크숍 등을 거쳐 최종 15명의 참여자를 선발한다.

올해는 참여자수를 총 300명으로 확대해 선발, 진행할 예정이며 취업 세미나 개최와 참여형 프로젝트 운영 등을 통해 참여자의 취업 역량 강화와 취업 기회 확대에도 힘을 기울인다.

뉴스1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접수 5월 시작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 접수가 5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층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3월 청년 면접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 홈페이지에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 1985년생부터 2002년생까지의 청년 중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도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가능)이다.

올해 실시한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 분까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한 면접 횟수에 해당하는 면접수당(최대 21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

한다.

올해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 중 시작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도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사책 관련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구직활동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양군, 관광객 증가 대비 관광택시 운영

강원 양양군은 오는 3월부터 플라잉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외국인 관광택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관내 개인 및 법인 택시 75대를 대상으로 오는 3~17일 공고를 통해 운전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상 무사고, 2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다.

선발 후 친절서비스 및 문화관광해설 교육도 실시한다.

택시요금은 이용객이 지불하는 금액 외에 차액을 사후에 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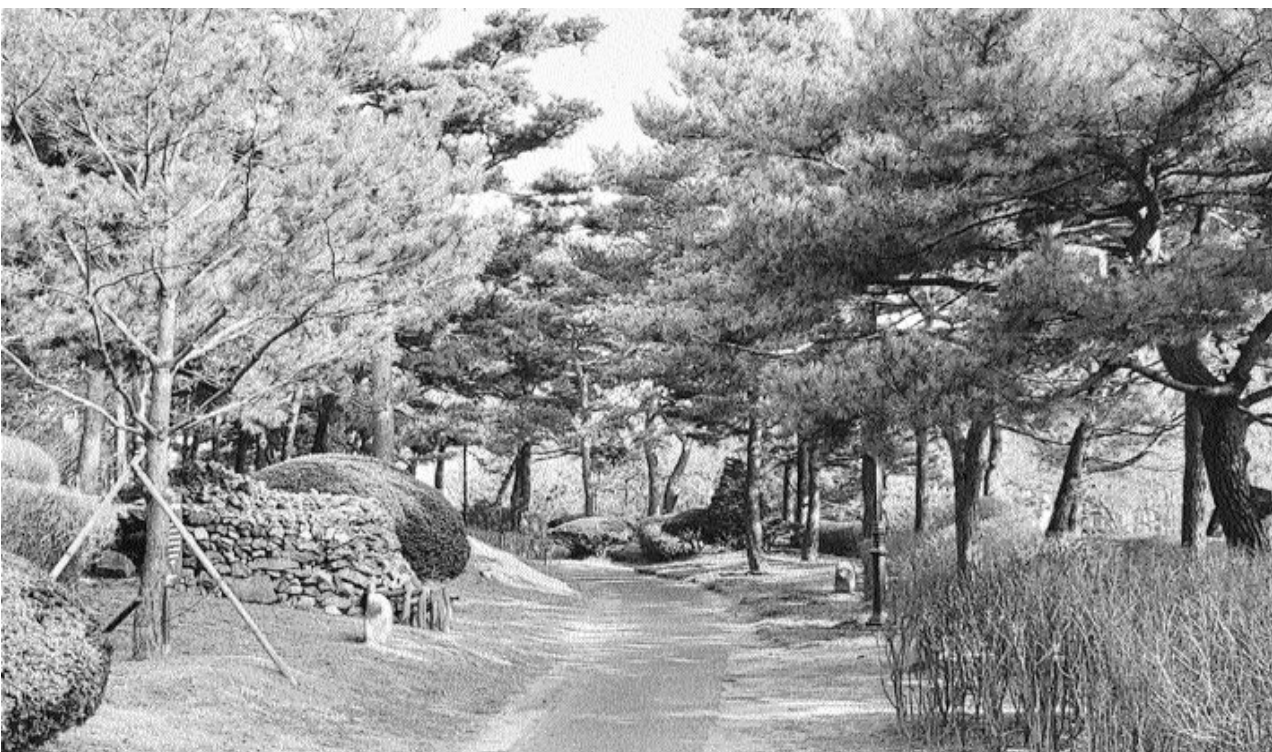
필수관광지 및 추천관광지 등 1일 3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관광코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택시 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운영코스, 호출방법, 요금 등을 협의한다.

양양군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018년 1만4350명 대비 지난해 4만2496명으로 크게 늘었다.

군 관계자는 “군청 홈페이지, 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외국인 관광택시를 홍보하고 여행업계 및 미디어 팸투어 확대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모객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1



고즈넉한 겨울숲 겨울숲의 정취도 느끼고 정서적인 힐링과 함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남산 둘레길 겨울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산 둘레길 겨울산행은 팔도소나무단지·남산야외식물원산림숲길, 서울향양도성길, 소나무힐링숲, 석호정, 남산전망대(필동), 서울시청 남산별관까지 총 3.8km 코스다.

대구교육청, 초·중학생 기초학력 강화 프로젝트 가동

대구시교육청은 1일 초·중학생의 기초·기본학력을 높이기 위해 ‘3+4단계 안전지원망’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업-학교-학교 밖으로 진행된 3단계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한 4단계 과정을 추가해 학생 특성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학력 향상 지원에 나서려는 것이다.

우선 초등3~중3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두뇌기반 표준화검사, 담임관찰 등을 통해 기초학력

보정시스템, 1수업 2교사제, 학습보조장치 등으로 1단계 지원을 한다.

수업 지원만으로 학력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가 두뇌기반 이해검사, 난독진단검사 등 2차 진단에 나서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습코칭을 통한 3단계 지원이 이뤄진다.

학교와 교육청 지원으로도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밖 전문기관인 두뇌기반 학습바우처, 난독바우처

와 연계해 4단계 지원을 하는 식이다.

대구시교육청은 기초·기본 학력 향상을 위해 올해 초·중학교 지원 예산을 늘리고, 두뇌기반 학생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도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기초학력 지원을 수업 내, 학교 안, 학교 밖에서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교육의 책무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교육수요자에게 신뢰받는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화도시 청주’ 원년...청주문화재단 조직개편 단행

충북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문화도시 업무 역량 강화에 집중할 청주시문화도시센터를 여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지난해 12월 청주시가 문화도시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청주문화재단은 기존 1실 8팀제로 운영하던 기존 조직을 1센터 1실 7팀제로 재조직했다고 2일 밝



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확대·신선했다.

청주시문화도시센터를 오는 11일 청단문화산업단지 3층에 문을 연다.

정책기획실 내 운영할 7개 팀은 지역문화팀, 시민예술팀, 문화산업1팀, 문화산업2팀, 공연진흥팀, 경영지원팀, 공간운영팀으로 재편했다.

이중 새로 신설한 시민예술팀은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뉴스1

부산시 ‘잇츠더쉽 코리아’ 성공 위해 힘 모은다

오는 8월 국제관광도시 부산에서 아시아 최대 크루즈 페스티벌 ‘잇츠더쉽코리아(IT'S THE SHIP KOREA)’가 첫 출항의 뜻을 올린다.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부산관광공사는 4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크루즈랩과 크루즈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에서는 올해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까지 열리는 ‘잇츠더쉽코리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약기관 간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다.

잇츠더쉽코리아는 오는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3박 4일간 부산항을 모항으로, 부산에서 출발해 일본 등을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오는 항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박은 이탈리아의 코스타 네오로만티카호(5만7000GT)로 18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이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크루즈여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크루즈가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주로 즐기는 상품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20·30대들이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결합해 수요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크루즈랩은 오랜 선상 페스티벌 노하우를 보유한 라이브스케이프그룹과 국내 페스티벌 업계의 선두주자이자 월드디제이페스티벌 제작사인 BEPC탄젠트와 함께 협업을 세계적인 해상 크루즈 페스티벌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본격적인 부산 크루즈 모험 시대를 여는 ‘잇츠더쉽코리아’가 부산지역의 지역문화팀, 시민예술팀, 문화산업1팀, 문화산업2팀, 공연진흥팀, 경영지원팀, 공간운영팀으로 재편했다. 이 중 새로 신설한 시민예술팀은 시민 예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 업무를 맡는다.”

전북대 우수학생 기숙형 프로그램 관심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목적 올해 도입...경쟁률 6대1

전북대학교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 도입한 ‘우수학생 기숙형 대학(이하 HCR) 프로그램’에 대한 신입생들의 관심이 뜨겁다.

31일 전북대에 따르면 HCR 신입생 선발 최종 원서접수 결과, 100명 모집에 607명이 지원, 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HCR은 우수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줄이고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HCR에 선발될 경우, 기숙사비 면제와 여학교육 지원, HCR 교과·비교과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장학지원을 받게 된다.

2학년 과정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에서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경비는 모두 대학에서 지원된다.

3·4학년 과정부터는 산학형·진학형으로 구분, 맞춤형 교육이 실시된다. 산학형은 우수기업과 연계한 장학금 지원이, 진학형은



지도교수 연구실에서 1학기 이상 활동하게 된다.

HCR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최종 성적표에는 HCR우수학생 인증마크가 부여되고 대학원 등록금 면제, 교비유학생 선발 시 가점 부여, 분교 박사 후 연구원 선발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김동원 총장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체계적인 HCR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우수인재를 유치하겠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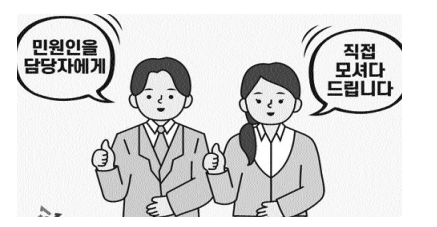
전북대 향후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대전 동구, ‘민원 에스코트 서비스’ 시행

대전 동구는 3월부터 구청에 방문한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담당자 꼭! 민원 에스코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어르신·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가 구청 1층 열린민원실을 방문할 경우, 에스코트 직원이 민원인을 모시고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에스코트 직원은 민원인 안내뿐만 아니라 민원사항을 1차적으로 청취해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민



원내용을 인계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할 예정이다.

분관, 도서관, 보건소 등 사회적 약자가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청사 내부를 직원이 직접 친근하게 안내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